

2022년 10월 2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9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10장 1~12절(구약p.770)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4.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5.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까
8.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0.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긴 것처럼 영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12.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까

◎ 말씀선포 / 죄인이 구원받는 근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 최악 된 세상을,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멸망당 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구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옴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옴은 본문 9~12절에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긴 젖처럼 영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로 자신을 보살피시는 자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옴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키시는 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옴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극한 고난에 처한 옴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 9~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긴 젖처럼 영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 절인 3~8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빛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괴로운 대로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결국 옴의 주장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옴의 강하고 거친 말은 어찌 보면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흙으로 비유하여 토기장이에게 토기를 만들기도 깨뜨릴 수도 있는 주권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옴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옴은 모든 재앙이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주권적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사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복을 빕니다. 세상의 다른 신을 찾으며,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마음을 쏟아놓는 호소로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옴이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호소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2절에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말기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반드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내 잔을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2.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옴은 하나님께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시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다. 본문 5-6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이는 죄로 오염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신다면 자신은 멸망당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옳은 이러한 호소는 인생이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음을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려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옳은 이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노력을 배제하고 옳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무능과 타락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95(통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 폐 회 / 주기도문